



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¹⁾

백혜정 선임연구위원
임희진 선임연구위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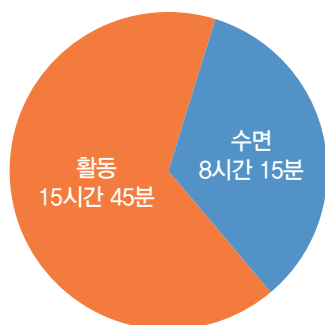
개요

- 조사목적** ▶ 청소년들의 건강권 보장 및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위기청소년들의 건강 및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, 그리고 관련 정책 및 지원 서비스 실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「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조사」를 실시하였음.
- 조사대상** ▶ 전국의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에 적을 둔 청소년
- ▶ 총 1,994명의 위기청소년들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활용됨: 남자 893명(44.8%), 여자 1,101명(55.2%), 19세 미만 1,559명(78.2%), 19세 이상 435명(21.8%),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,423명(71.4%), 청소년쉼터 317명(15.9%), 소년원 112명(5.6%), 내일이룸학교 74명(3.7%), 미인가 대안학교 30명(1.5%)
- 조사방법** ▶ 조사원에 의한 면대면 자기기입식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사원의 면대면 조사를 원치 않는 기관은 유치조사 및 우편조사를 허용하여 57.5%가 우편조사로 대체됨.
- 조사기간** ▶ 2020년 6월~7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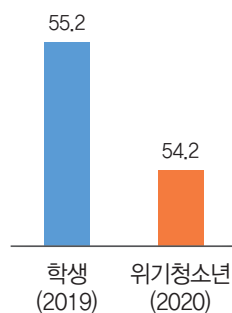
1) 본 청소년 통계 브리핑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도 연구과제인 '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: 위기청소년'의 일부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.

1 위기청소년의 건강행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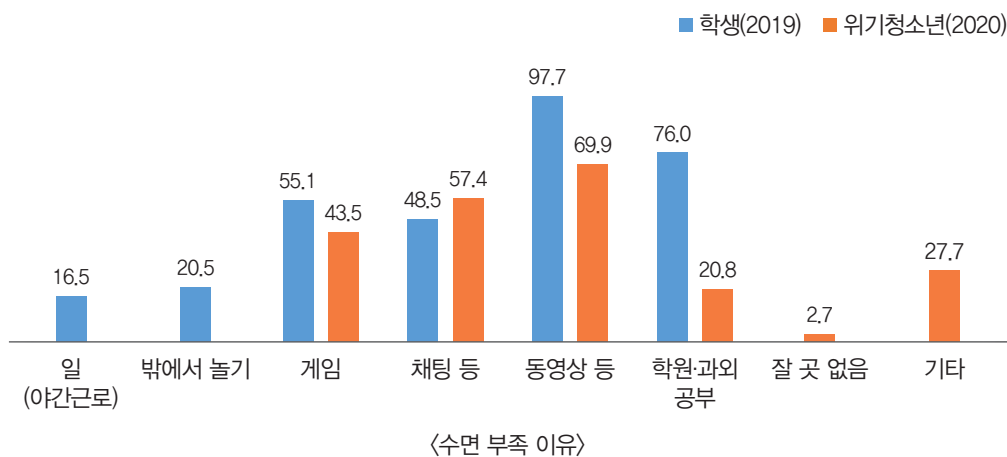
- 위기청소년들의 전반적인 건강행동은 취약한 경향을 보임.
- 평균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였으나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하였음.



〈위기청소년들의 평균 수면시간〉



〈평소 수면 부족을 느끼는 비율〉



※ 학생(2019) 자료는 위기청소년들의 수면 부족 이유를 기준으로 전년도 연구인 「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」 설문조사 결과 중 중고생만을 추려 재분석한 결과임.

그림 1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 및 부족한 이유(%)

■ 최근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 횟수를 살펴본 결과 위기청소년들 중 매일 거르지 않고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가 22.6%에 불과함.

- 일주일 내내 아침 식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는 28.4%임.
- 2019년 학생들과 비교할 때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임을 알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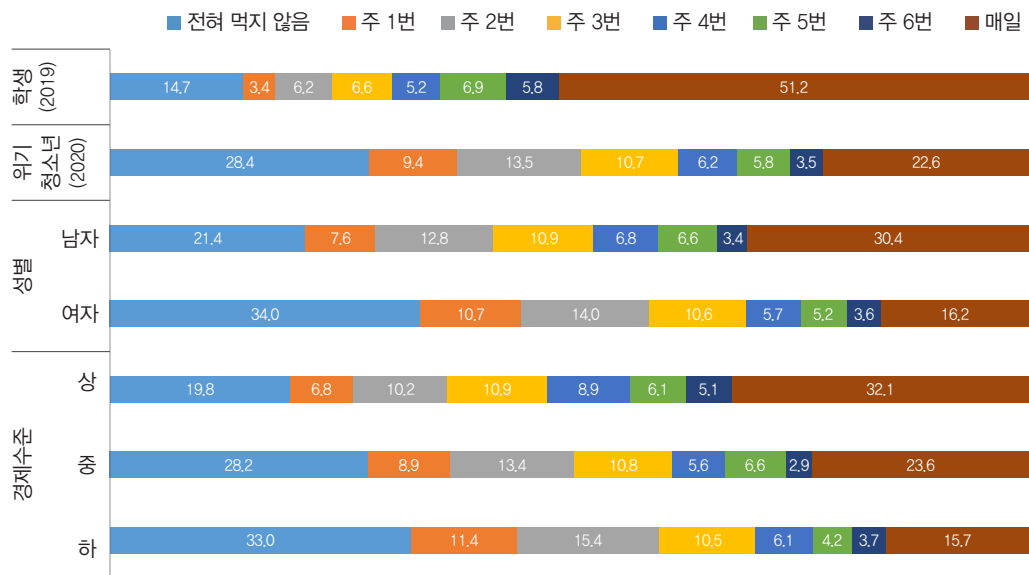


그림 2 위기청소년들의 최근 7일간 아침식사 횟수(%)

- 여자 청소년과 저소득층 청소년들, 비재학 고졸 이하 청소년들은 신체활동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경향을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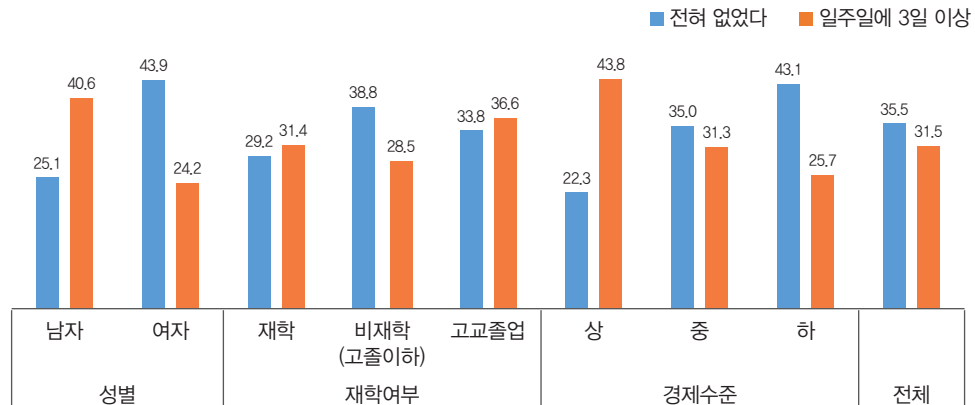


그림 3 위기청소년들의 최근 7일간 신체활동 정도(%)

- 위기청소년들 중 비만인 경우는 10명 중 2명꼴로 나타남.

- 특히 19세 이상은 비만을 뿐 아니라 저체중률 및 과체중률도 높아 정상체중을 유지하는 청소년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음.
-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비만율이 높았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 및 저체중률이 증가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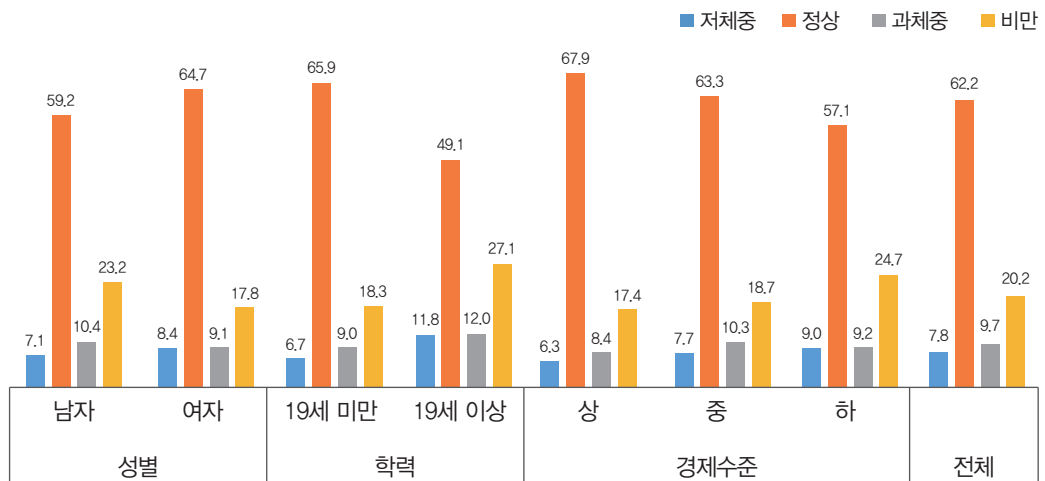


그림 4 위기청소년들의 비만 정도(%)

■ 응답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지난 한 달간 음주나 흡연 또는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.

- 음주 경험자 10명 중 3명은 음주 후 기억손실, 약 1.5명 정도는 음주 운전(동석)이나 음주 후 시비경험이 있다고 응답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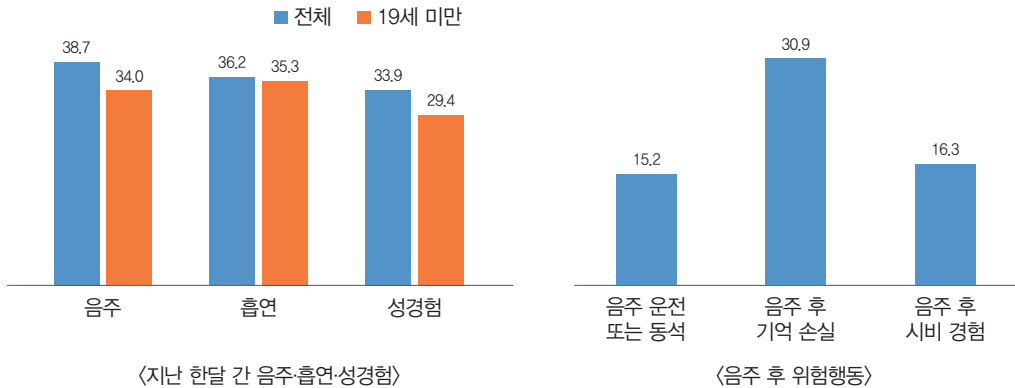


그림 5 위기청소년들의 음주 · 흡연 · 성경험 정도(%)

■ 위기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을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긍정 응답률을 살펴 봄.

-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섭취하려고 하는 청소년은 77.8%, 아프면 병원에 간다는 청소년은 71.5%, 평소보다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쉬는 응답을 한 청소년은 74.8%였음.
- 하위 집단별 차이를 보면 대체로 일 경험이 있는 청소년, 가정 밖 생활 경험 1년 이상 청소년, 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 등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데 상대적으로 더 소극적인 경향을 보임.
- 성별에 따른 차이로는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섭취하려는 경향은 남자에게서, 평소보다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쉬는 경향은 여자에게서 더 높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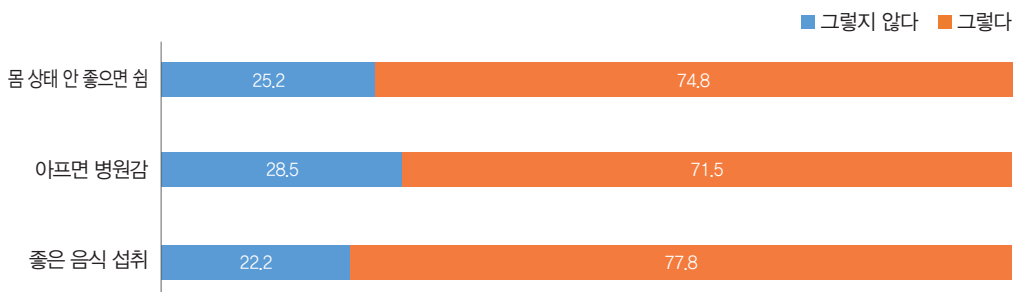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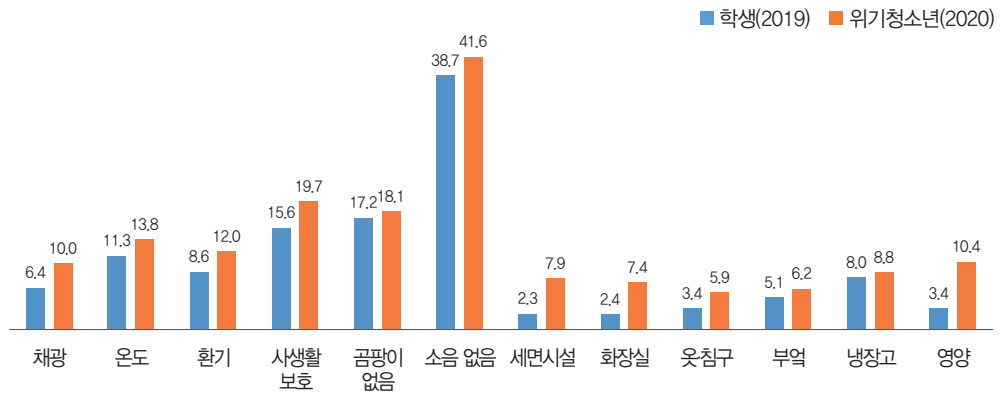


그림 6 자신의 건강을 위한 돌봄 정도(%)

2 위기청소년의 건강 환경

■ 주거환경에 대한 위기청소년들의 응답률을 2019년 학생 응답률과 비교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위기청소년들의 부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.

- 위기청소년들이 주거환경에서 가장 열악하게 느끼는 항목은 소음, 사생활 보호 안 됨, 곰팡이 순이었으며 영양이나 세면시설, 화장실 등에서는 학생 청소년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부정 응답률이 낮았음.



※ 학생(2019) 자료는 「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」의 결과임.

그림 7 주거환경에 대한 부정 응답률(%)

- 주거환경과 신체 및 정신 건강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관련성에 대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거환경이 열악할수록 청소년들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도 좋지 않았으며 신체적 건강보다는 정신적 건강이 주거환경과 좀 더 관련성이 높았음.

표 1 건강과 주거환경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

N=1,017

변인	신체건강(DV)	주거환경	B	β
(상수)			33.868***	
주거환경	-.301***		-2.717***	-.301
평균	25.78	2.98	$R^2 = .090^{***}$ 교정된 $R^2 = .089^{***}$ $R = .301^{***}$	
표준편차	3.58	0.40		

N=1,847

변인	정신건강(DV)	주거환경	B	β
(상수)			28.609***	
주거환경	-.365***		-4.919***	-.365
평균	13.98	2.98	$R^2 = .133^{***}$ 교정된 $R^2 = .133^{***}$ $R = .365^{***}$	
표준편차	5.40	0.40		

주: * $p < .05$ ** $p < .01$ *** $p < .001$

■ 근로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들에게 근로환경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근로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일한 청소년이 적지 않았음.

- 공기가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일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20.6%, 소음이 심한 곳에서 일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26.7%임.
- 다칠 위험이 높은 곳에서의 근로경험은 34.1%, 실제로 심하게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4.8%로 나타남.
- 야간근로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8.7%, 휴게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하루 8시간 이상 일했다는 응답은 22.4%, 개인위생공간이 적절치 못하다는 응답은 9.8%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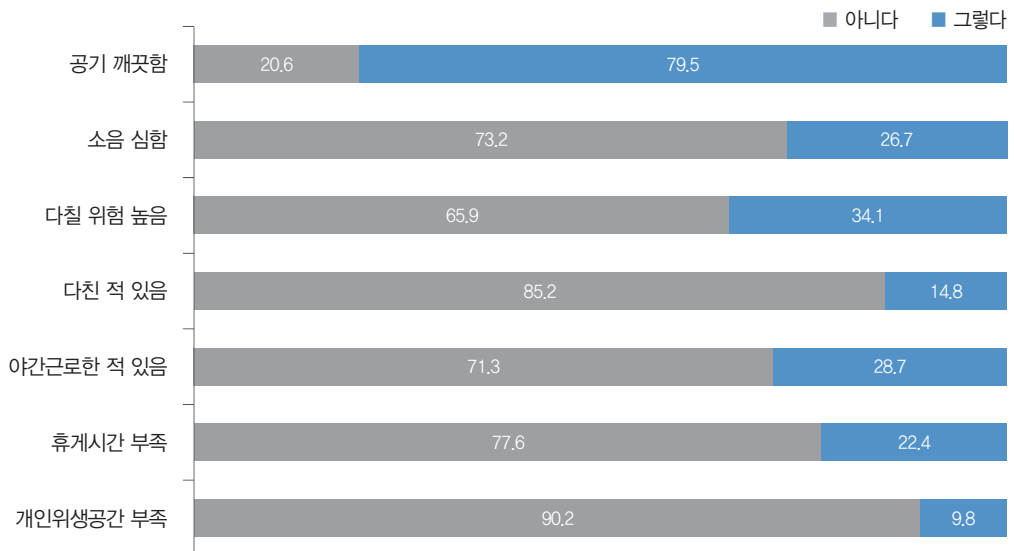


그림 8 근로환경에 대한 응답률(%)

- 근로환경과 신체 및 정신 건강 간의 관련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근로환경이 열악할수록 청소년들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도 좋지 않았으며 정신적 건강보다는 신체적 건강과 좀 더 관련성이 높았음.

표 2 건강과 근로환경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

N=414

변인	신체건강(DV)	근로환경	B	β
(상수)			31.244***	
근로환경	-.208***		-1.446***	-.208
			$R^2 = .043^{***}$ 교정된 $R^2 = .041^{***}$ $R = .208^{***}$	
평균	26.61	3.19		
표준편차	3.60	0.52		
			N=795	
변인	정신건강(DV)	근로환경	B	β
(상수)			20.464***	
근로환경	-.198***		-1.820***	-.198
			$R^2 = .039^{***}$ 교정된 $R^2 = .038^{***}$ $R = .198^{***}$	
평균	14.77	3.13		
표준편차	5.27	0.57		

주: * $p < .05$ ** $p < .01$ *** $p < .001$

- 위기청소년들은 아프거나 힘들 때 가족보다는 친구나 선생님 등 가족 밖에서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 좀 더 높았으며 아프거나 힘들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 버틴다는 청소년이 55.3%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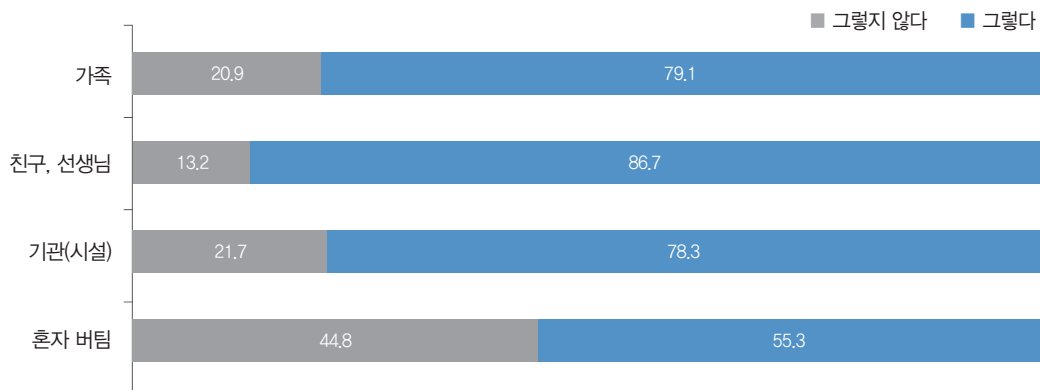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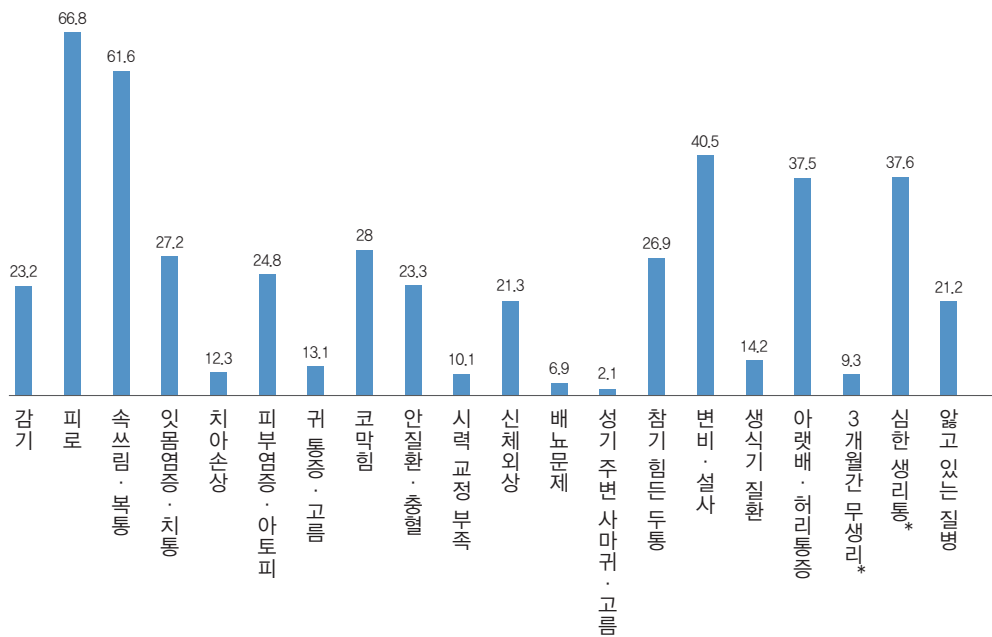
그림 9 건강 위기 시 사회적 자원 활용(도움을 청하는) 정도(%)

- 위기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보호체계가 취약한 만큼 필요시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.

3 위기청소년의 건강 상태

■ 위기청소년들의 신체건강 상태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.2%는 최근 30일 동안 적어도 하나 이상의 증상이나 질병을 경험하였고 이중 가장 많이 언급된 피로를 제외하더라도 응답자의 85%가 하나 이상의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함.

-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증상은 쉽게 피로함(66.8%)이었으며 속쓰림·복통(61.6%), 변비 및 설사(40.5%), 배변과 상관없는 복통 및 허리통증(37.5%)이 그 뒤를 이음.
- 그 외에 코막힘(28%), 잇몸염증·치통(27.2%), 참기 힘든 두통(26.9%), 아토피 등 피부질환(24.8%), 안질환(23.3%), 감기(23.2%), 신체 외상(21.3%) 등도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경험한 증상들임.



주: * 여자 청소년들만 응답

그림 10 최근 30일 동안 경험한 신체적 증상 및 질환(%)

- 신체적 증상 및 질병을 경험한 청소년들 중 응답자의 55%가 병원 진료나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함.

– 주된 이유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증상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거나 진료를 귀찮아하기 때문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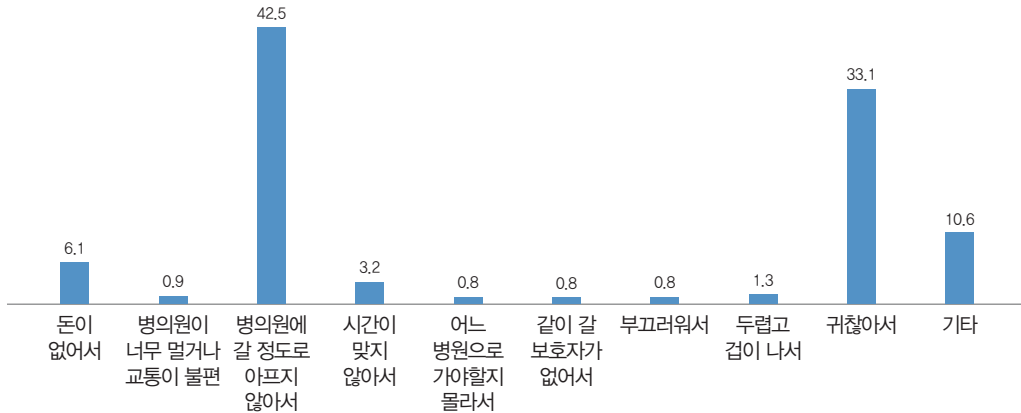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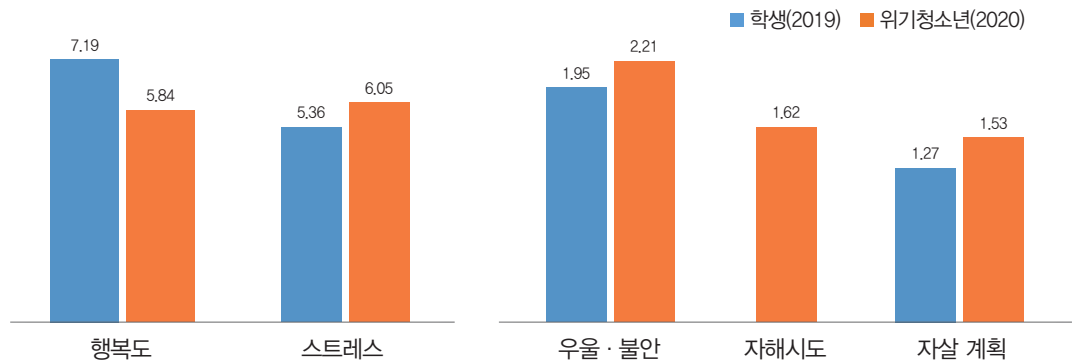


그림 11 병원 진료나 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(%)

- 위기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전반적으로 2019년 조사에서 나타난 학생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남.

- 현재 행복도를 측정한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5.84점이었으며 스트레스 점수는 6.05점(10점 만점)임.
- 4점 척도(전혀 그렇지 않다(1점), 매우 그렇다(4점))로 측정한 우울 · 불안 정도는 2.21점, 자해 시도는 1.62점, 자살 계획은 1.53점임.
-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최근 12개월 동안 심리검사나 상담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0.3%가 있다고 응답하였음.



※ 학생(2019) 자료는 전년도 연구인 「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」 설문조사 결과 중 중고생만을 추려 재분석한 결과임. 자해시도에 대한 2019년 결과는 없음.

그림 12 정신건강(점)

- 위기청소년들은 학생 청소년에 비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신체적 건강보다는 정신적 건강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낮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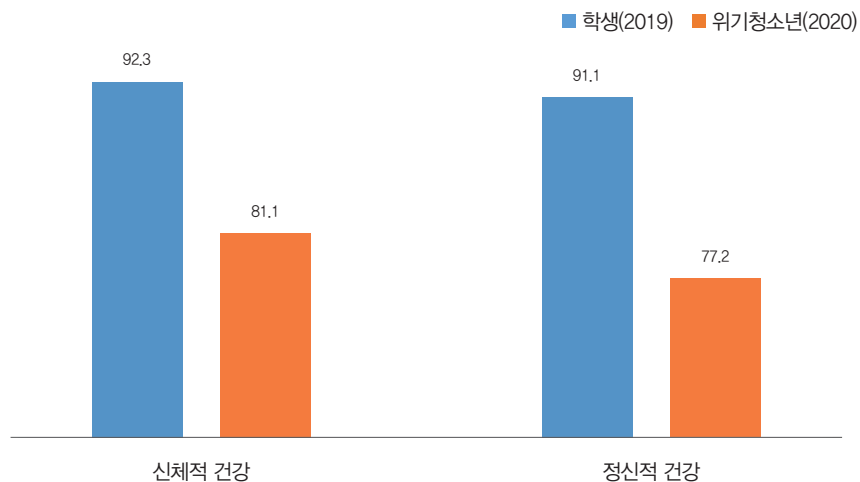


그림 13 주관적 건강 상태 긍정 응답률(%)